

Ⅲ. 국내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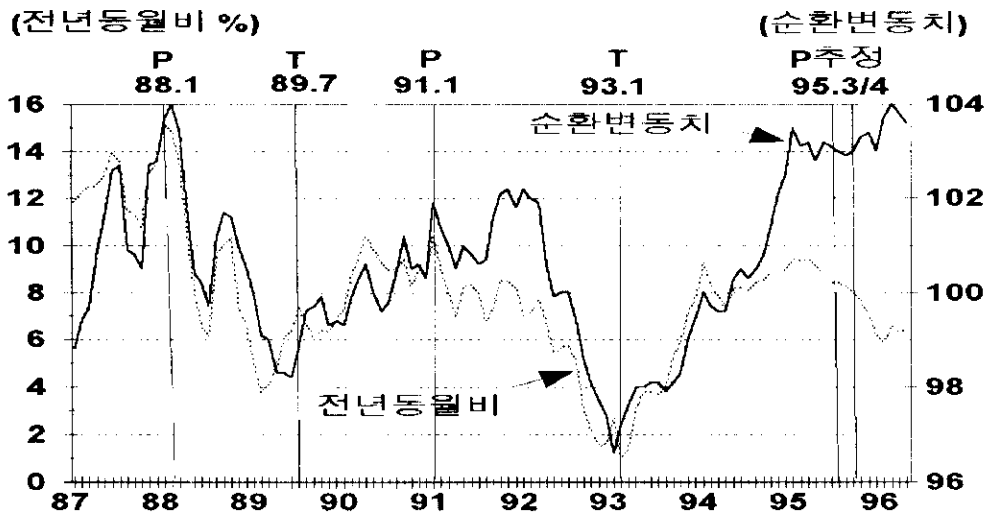
1. 국내 경제 개관

(1) 경기 정점 및 저점 평가

95년 3/4분기 정점 이후 경기 지속적 하강세

- 경기는 95년 3/4분기를 정점으로 하강세를 지속하고 있음
-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95년 1월 이후 경기의 변동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추세치를 제거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순환 변동치를 대체할 수 있는 전년 동월비를 사용하여 경기의 흐름을 추정함
- 그 결과, 경기 정점은 늦어도 95년 3/4분기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경기는 전형적인 하강 국면임

< 동행 종합 지수의 추이 >



	94 4/4	95 1/4	95 2/4	95 3/4	95 4/4	96 1/4
GDP성장률(전년동기비)	9.4	10.0	9.7	9.8	6.8	7.9
경기 국면(추정)		상승		정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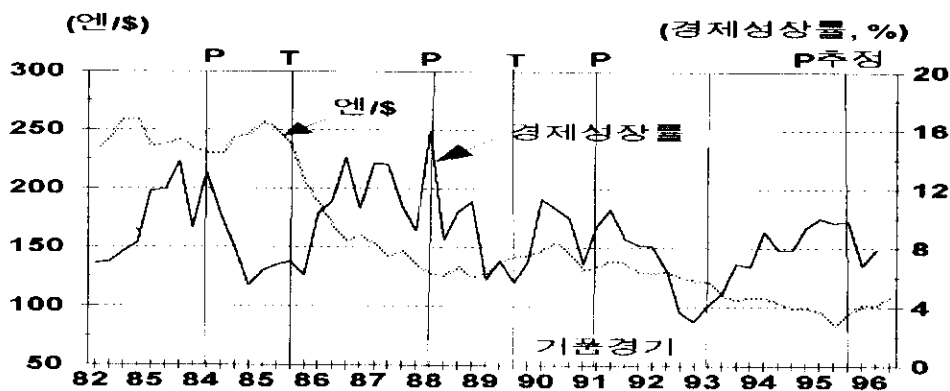
97년 1/4분기 저점을 이룰 것으로 추정

- 경기 정점이 95년 3/4분기로 추정됨에 따라 경기 저점은 97년 1/4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수축 국면은 거품 경기가 나타났던 제 5 순환을 제외하고는 약 16~19개월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경기 저점은 빠르면 96년 4/4분기, 늦어도 97년 2/4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경기 저점은 우리 경제가 엔저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시점일 것임
- 89~93년의 거품 경기 기간을 제외하고 엔/달러 환율과 경제 성장률은 역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엔저 현상은 96년 3/4분기부터 반전될 것으로 예측됨
- 엔화 환율 변동의 영향이 약 3~4개월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면 97년 1/4분기에는 엔저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나라의 경기 순환 >

	저점	→ 정점	→ 저점	확장기간	수축기간
제 1 순환	73.3	74.2	75.6	23개월	16개월
제 2 순환	75.6	79.2	80.9	44개월	19개월
제 3 순환	80.9	84.2	85.9	41개월	19개월
제 4 순환	85.9	88.1	89.7	28개월	18개월
제 5 순환	89.7	91.1	93.1	18개월	24개월
제6순환(추정)	93.1	95.(3/4)	97(1/4)	32~34개월	16~19개월

<엔화 환율과 경제 성장>



(2) 전망 개요

하반기 경기는 상반기보다
위축될 전망이다

○ 96년 하반기 경기는 상반기보다 위축될 것으로 보임

- 97년 경기는 96년 하반기 경기 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연중으로는 96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 세계 경기의 회복세에 의해 수출 증가율은 9~11% 수준 예상
- 그러나 경기 하강기의 지속에 의해 투자와 소비는 위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거시 경제 지표 추이 및 하반기 경제 전망> (억 달러,%)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내총생산	8.6	9.8	8.2	9.0	7.3	7.0	7.2	6.9~7.2
민간소비	7.6	8.4	7.5	7.9	7.4	7.2	7.3	6.8~7.1
설비투자	23.3	21.5	11.1	15.9	5.2	7.0	6.1	6.0~7.0
경상수지	-45.3	-59.9	-28.3	-88.2	-92	-21	-113	-85~-105
무역수지	-31	-44	-4	-48	-53	-7	-60	-47~-59
수출입차	-63	-71	-30	-101	-79	-39	-118	-87~-106
수출(통관)	960	582	668	1,250	651	715	1,366	1,489~1,516
(증가율)	(16.8)	(33.2)	(27.8)	(30.3)	(11.8)	(7.0)	(9.2)	(9.0~11.0)
수입(통관)	1,023	653	698	1,351	730	754	1,484	1,595~1,603
(증가율)	(22.1)	(37.8)	(27.0)	(32.0)	(12.1)	(8.0)	(9.8)	(7.5~8.0)
소비자물가	5.6	3.1	4.7	4.7	3.8	4.9~5.0	4.9~5.0	4.3~4.6
회사채수익률	14.3	14.7	11.9	11.9	11.7	12.0	12.0	10.5~11.0
환율 원/달러	788.7	758.1	774.7	774.7	810.6	780.0	780.0	770~785
환율 엔/달러	99.8	84.8	102.7	102.7	109.8	106.0	106.0	103~107

주: 국민계정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소비자물가는 전년말대비 증가율, 회사채수익률과 환율은 기말 기준

2. 거시 부문별 전망

(1)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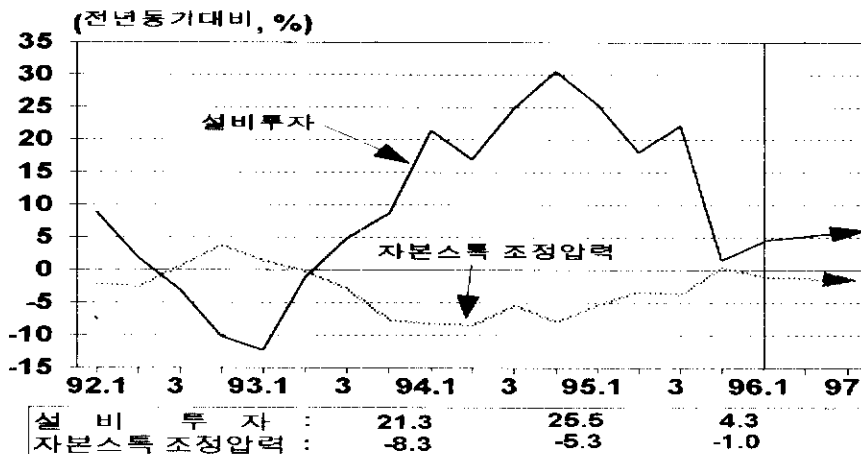
95년 4/4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 급
락

- 자본 스톡 조정 압력이 높아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95년 4/4분기 이후 크게 감소함
- 92, 93년에 걸쳐 감소세를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93년 이후 (-)의 자본 스톡 조정 압력하에서 94, 95년에는 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
- 생산능력 확충에 집중되었던 설비투자는 95년 하반기부터 자본 스톡 조정 압력이 상승하면서 증가율이 급격히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냄

설비투자 둔화 97년
상반기까지 지속

- 이러한 설비투자 증가의 둔화세는 97년 상반기 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부진과 경기 하강 지속 예상에 의한 투자 조정 지속
- 한편 SOC 투자의 민자 유치 규모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건설투자 증가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자본 스톡 조정 압력과 투자 추이>



주 : 자본스톡 조정압력=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증가율 - 제조업 생산 증가율

(2)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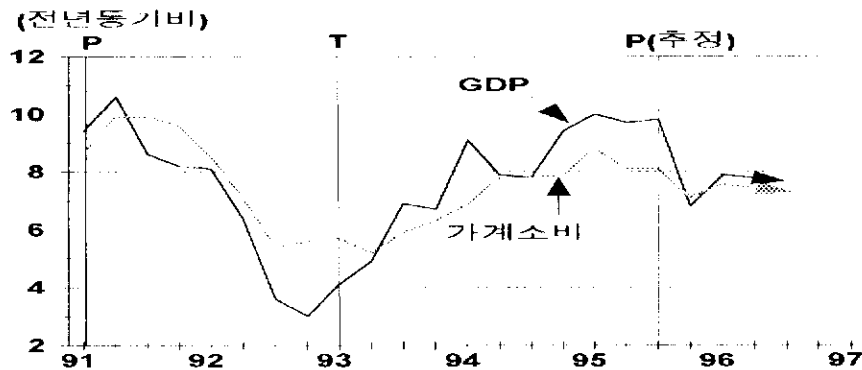
96년 소비 증가율은 GDP 성장률을 다소 상회

- (96년 가계소비) 경기 하강기에는 GDP 성장률을 추월했다가 상승기에는 GDP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음
 - (96년 상반기) 경기 하락의 초기 단계인 관계로서 GDP 성장률이 가계소비지출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뚜렷하지 않음
 - GDP : 7.3 %, 가계 소비 : 7.4 %
 - (96년 하반기) 경기 하강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은 GDP 성장률을 다소 상회할 것임
 - GDP : 7.0 %, 가계 소비 : 7.2 %

97년 소비 증가율은 GDP 성장률과 비슷할 전망

- (97년 가계소비) 97년에 1/4분기에 경기가 저점에 이르렀다가 상승하면서 가계소비는 GDP 성장률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음
 - 경기 연착륙으로 97년 경기 상승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가계소비 증가도 96년 수준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임
 - 상반기 중에는 가계소비가 GDP보다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경기가 상승하는 하반기에는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가계소비는 GDP와 비슷한 연간 약 7.0 % 전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소비자의 체감 경기와 경제 지표 >



(3) 대외거래

96년 1~5월중 경상수지 적자 전년동기비 60% 증가

- 96년에 들어 5월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81.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50.7억 달러에 비해 60% 증가
 - 무역수지 적자는 46.9억 달러로 25.4% 증가
 - 수출 증가율은 주요 수출 제품의 단가 하락으로 4월(6.5%), 5월(7.5%) 계속 한자리 수로 둔화되어 5월말 누계로 14.8% 증가
 - 수입은 고급 소비재 수입의 증가로 5월말 누계로 15.6% 증가
 - 무역외수지 적자는 여행수지가 악화되면서 29.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

96년 하반기 및 97년에도 경상수지 적자 지속 예상

- 96년 하반기에도 경상수지 적자 추세 지속 예상
 - 엔저로 인한 수출 부진과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무역외수지 악화가 계속될 전망
- 97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두드러진 요인이 없어 경상수지 적자는 85~105억 달러에 달할 전망
 - 97년 수출 환경도 96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96년 하반기 및 97년 경상수지 전망>

(억 달러, %)

	1995			1996			199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상수지	-59.9	-28.3	-88.2	-92	-21	-113	-85~-105
수출입차	-71	-30	-101	-79	-39	-118	-87~-106
수출	582	668	1,250	651	715	1,366	1,489~1,516
(증가율)	(33.2)	(27.8)	(30.3)	(11.8)	(7.0)	(9.2)	(9.0~11.0)
수입	653	698	1,351	730	754	1,484	1,595~1,603
(증가율)	(37.8)	(27.0)	(32.0)	(12.1)	(8.0)	(9.8)	(7.5~8.0)
무역외수지	-15.8	-19.3	-35.1	-34.9	-12.5	-47.4	-32~-35

주: 수출, 수입은 통관 기준임

(4) 시중 금리

시중 금리 하반기에
상승세로 반전 전망

○ 96년 시중 금리는 상반기 하향 안정세에서 하반기 상승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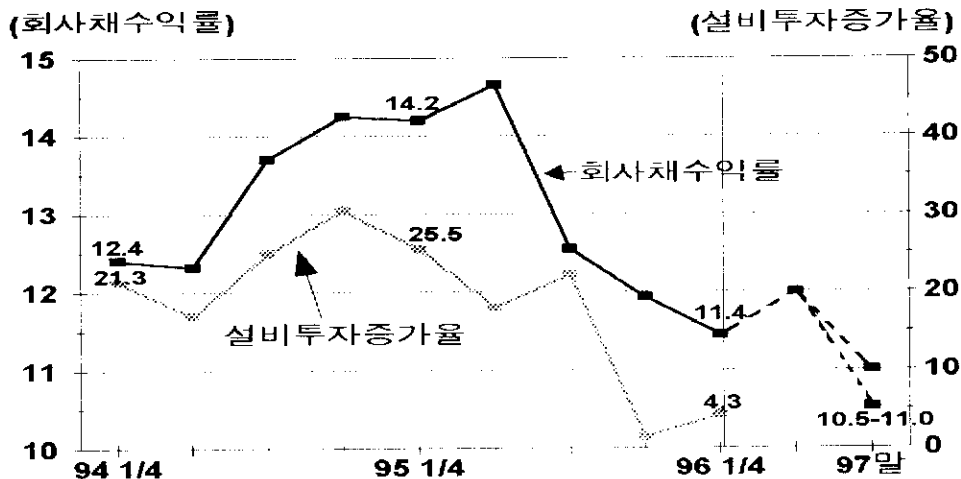
- 상반기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둔화, 시중 자금 사정 호조로 하향 안정
-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수출 둔화와 재고 누증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 신탁제도 개편으로 단기 투자 자금의 채권 시장 이탈
 - 금융 시장 개방 확대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하여 통화 관리 여건 악화

97년 회사채 수익률
10%대로 하락 예상

○ 97년 회사채 수익률은 10.5~11.0%까지 하락 예상

- 경기의 급랭 방지를 위한 정부의 통화 관리 완화 기대
- 급속한 자본 유입을 제어하기 위한 정부의 저금리 정책 지속
- 그러나 하반기 이후 완만한 경기 상승 및 12월 대선 등의 요인으로 시중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중 금리 추이 및 전망>



주: 회사채 수익률은 기말 기준,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5) 원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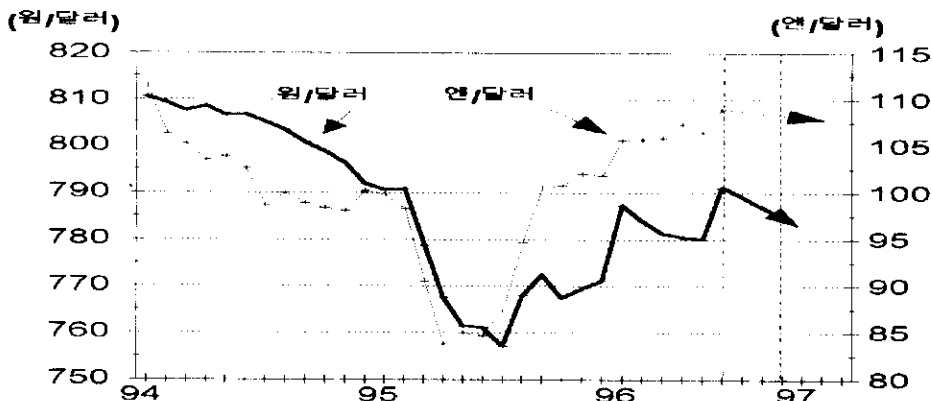
현재 원/달러 환율
급속한 절하 추세

- 96년 5월 하순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급속한 절하 추세로 반전됨
 -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대폭적인 수출 감소에 의한 경상 수지 적자 누증
 - 달러화 강세,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유입액의 둔화 등이 주요인

96 하반기~97년 원/달러 환율 완만한 절상세 전망

- 96년 하반기 이후 97년까지의 원/달러 환율은 완만하나 절상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
 - (절상 요인) 하반기 이후 경상 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자본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SOC 투자에 대한 상업 차관 도입(하반기중) 및 현금 차관(97년중) 허용,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 투자 한도 확대(하반기중 18% → 20%, 약 13억 달러 순유입 예상) 등으로 자본 유입 확대
 - (절하 요인) 그러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달러화 강세가 유지된다면 원/달러 환율의 절상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임
 - 국내외 외환 시장의 연계 강화로 달러화 강세는 국내에서의 달러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촉발하여 원화 약세 초래
 - (종합) 이런 점을 고려하면, 96년 말 원/달러 환율은 780원, 97년에는 770~785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추이>



(6) 물가

96년 물가 95년 수준
다소 상회 예상

○ (96년 물가) 곡물가의 불안으로 95년 수준을 다소 상회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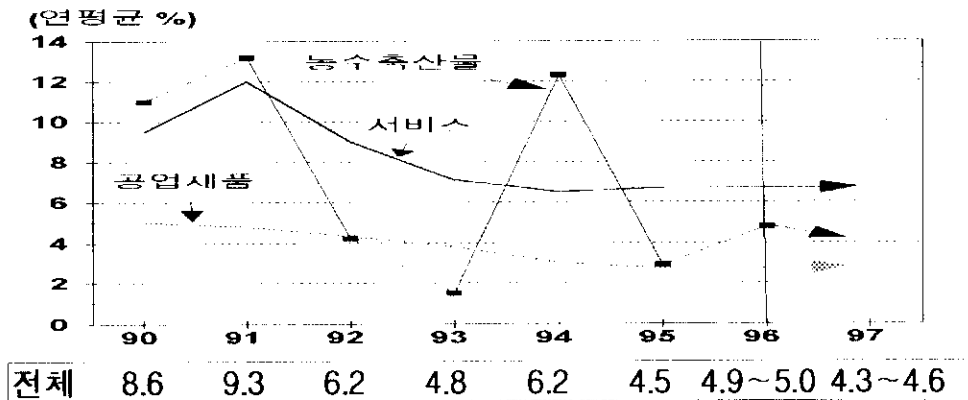
- (상반기) 공공 요금과 개인 서비스가 전체 물가를 주도함
 - 하지만 국제 곡물가 상승과 국내 공급 능력의 한계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이 95년 물가 수준을 상회하는 주요 원인임
 - 1월~6월 물가상승률 : 전년말대비 3.8%, 전년동기대비 5.5%
- (하반기) 공공 요금이 물가 상승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겠지만 농산물의 가격은 출하 시기인 4/4분기에 크게 안정될 것임
 - 7월~12월 물가상승률 : 6월말 대비 1.1~1.2% (추정)

97년 물가는 96년보다 다소 안정 전망

○ (97년 물가) 서비스 물가의 구조적 한계로 전체 물가 상승률은 약 4.3~4.6% 사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농수축산물) 국제 곡물가의 안정에 힘입어 연평균 3%대의 안정된 상승이 예상됨
- (공업제품) 제조업체의 원가 절감 노력과 할인점의 확대와 같은 유통 혁신에 힘입어 2~3% 정도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임
- (서비스) 공공 요금, 등록금 등의 만성적인 상승 압력, 서비스 산업의 낙후 등으로 6.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부문별 물가 상승률 >



(7) 주식 시장

6월 말 연중 최저치 기록, 7월 초에 850p 대에 근접하게 상승

○ 5월 7일 연중 최고치(986.84p)를 기록했던 종합 주가지수는 6월 29일 연중 최저치(817.43p)를 기록한 이후 7월 들어 6일 동안 약 32p 올라 850p 대에 근접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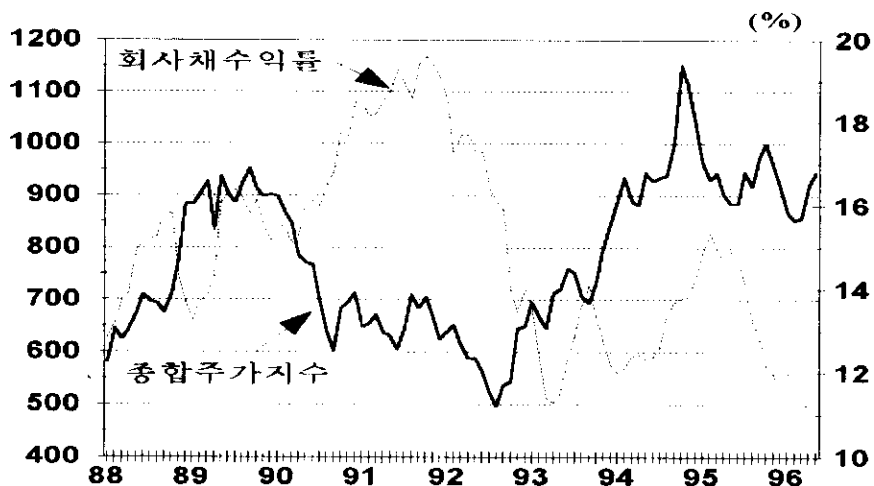
○ 중시 부진의 요인

- i) 경상수지 적자 확대, 금리 및 물가 인상 조짐
- ii) 수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하강세
- iii) 하반기 주식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감

○ 최근의 상승 요인

- i) 주가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 ii) 7월 2일 있는 청와대 경제 각료 회의 이후 하반기 경제에 대한 의견 수렴
- iii) 3/4분기 주식 공급 물량의 축소 수정
- iv) SOC 투자의 조기 집행 계획

<주가지수와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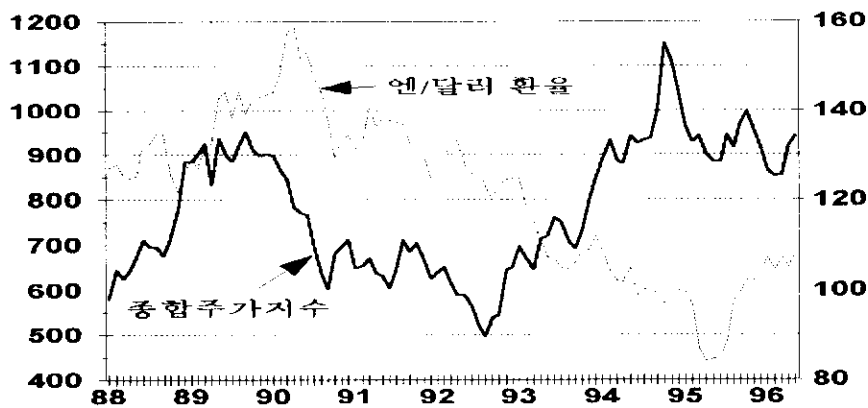
금리 상승은 국내 주식시장에 負의 영향

- 금리 상승은 국내 주식시장에 負의 영향을 미침
 - 금리의 상승은 주식 대신 채권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것과
 -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株價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엔低는 국내 주식시장에 負의 영향

- 엔低는 국내 주식시장에 負의 영향을 미침
 - 93년 중반 이후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 첫째, 엔低로 인한 국내 수출 기업의 국제 가격 경쟁력 하락 → 수출 감소 → 기업의 수익 감소 → 주가 하락을 기대 할 수 있고,
 - 둘째, 엔低로 인한 대일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 → 생산 원가 감소 → 기업의 채산성 개선 → 주가 상승도 야기 될 수 있음
 -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은 첫째 효과가 둘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으로 엔低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단,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기·기계 산업의 주가는 엔低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이 낮아져,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주가지수와 엔/달러 환율 변동 추이>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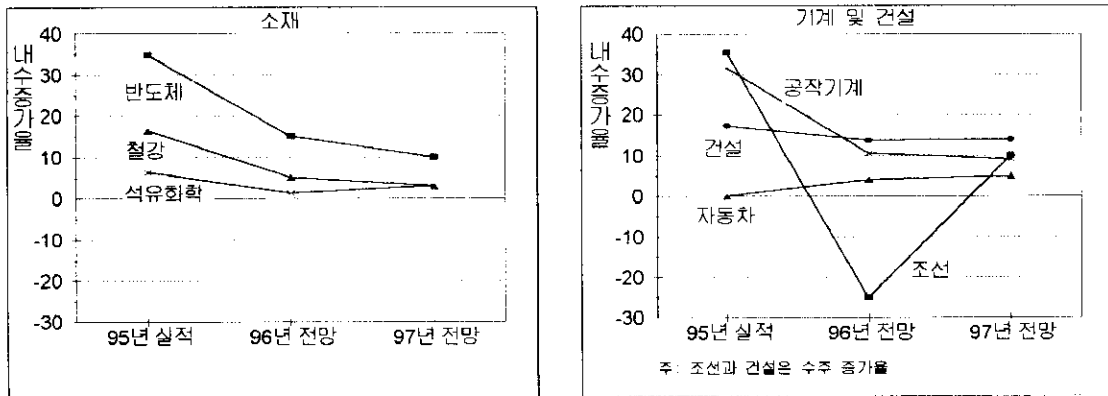
	하반기	97년
주요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투자 조기 확대 • 정보통신 사업의 지속 •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확대 • 금융산업 개편에 따른 금융주의 강세 • 5월에 매수한 신용거래의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른 물량 압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M&A 관련주의 부상 • 97년에 있을 대선으로 인한 주식투자의 기대감 상승 • 공기업 민영화와 대형회사의 상장에 따른 공급 물량 압박
증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저 현상의 지속 예상 • 경기 하강 국면 • 물가, 금리 불안 • 경상수지 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 OECD 가입 예상
종합 전망	<p>• 증시가 경기에 약 2분기 정도 선행한다는 가설에 따르면 96년 9~11월부터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이는 경기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저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p>	<p>• Fundamental한 측면에서는 급속한 상승이 어렵지만 외국계 자금의 증시 유입과 증시 개방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면 내년도 증시는 본격적인 상승을 맞이할 것임</p>

97년 증시는 투자 심리 및 경기 향방이 결정

- 내년도 증시의 향방은 투자 심리의 회복과 내년도 경기 동향에 따라 결정될 것임
- 공급면에서의 물량 압박은 당분간 지속되어 증시 상승의 걸림돌 역할을 할 것임

3. 주요 산업별 전망

<내수 경기>



국내 경기 하강에 의한 내수 증가율 하락세

○ 96년도 전망과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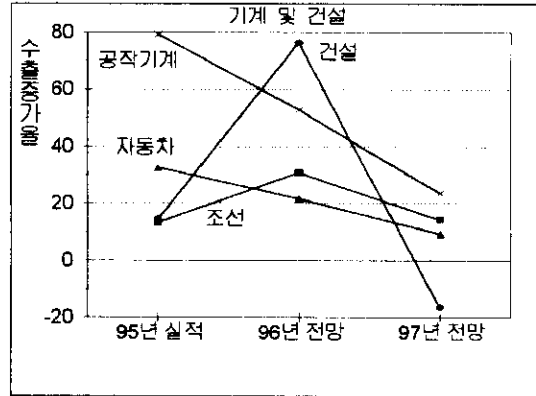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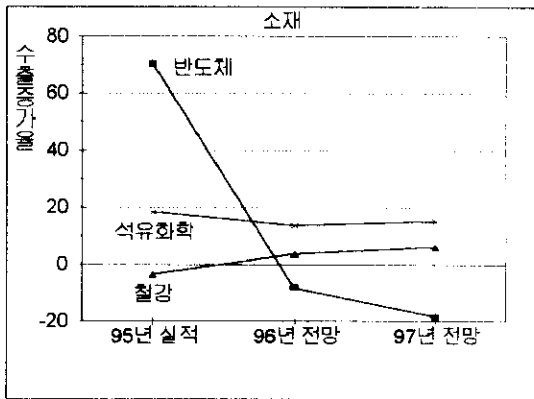
- 전망
 -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내수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조선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하락 요인
 - 하강 국면에 접어든 국내 경기 때문임
 - 조선의 경우는 엔저에 따라 수주 경쟁력의 약화에 기인함

97년 내수 시장은 96년도 신장세 유지 전망

○ 97년도 전망과 영향 변수

- 전망
 - 조선을 제외하고 96년도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즉 국내 산업경기의 연착륙이 기대됨
- 주요 영향 변수
 - 국내 경기의 연착륙 가능 여부
 - 특히 시장 개방, 대통령 선거 경기

<수출 경기>



반도체, 공작기계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

○ 96년도 전망과 영향 요인

- 전망: 산업별로 상반된 경향을 보임
 - 반도체 · 공작기계의 신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반면, 석유화학은 예년 수준을, 건설 · 조선 · 철강은 예년보다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영향 요인
 - 산업별 경기 순환(반도체, 조선)
 - 엔저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의 약화

97년 수출 경기는 소재 분야는 96년 수준, 기계 및 건설 분야는 하향세

○ 97년도 전망과 영향 변수

- 전망: 소재 분야는 96년 수준, 기계 및 건설 분야는 하향세
 - 철강과 석유화학은 올해보다 상승세를 탈 것이지만, 반도체 · 공작기계 · 조선은 96년도와 마찬가지로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다만, 건설은 96년도 신장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영향 변수
 - 세계 경기는 호전될 전망이어서 수출 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엔저가 지속될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 여부가 수출 경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 석유화학

동향

96년 상반기 수출 둔화로 경기 부진

○ 96년 상반기 석유화학 경기는 수출 둔화로 부진하였음

전망

○ 96년도 석유화학 경기는 국내 경기 부진과 중국 시장의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부진해질 것임

- 수출은 전년 대비 12.5%(347만 톤)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744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97년에도 경기 부진 지속 전망

○ 97년에도 유화 경기는 부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 내수는 97년에도 국내 경기의 부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 증가된 766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내수 부진과 공급 증대로 인해 업체들이 수출 확대에 노력하면서 물량 면에서 전년 대비 15%가 늘어난 39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치열해진 경쟁으로 단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임
- 이 때문에 국내 유화 업체들은 수익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1995	1996		199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석유화학	내수(천 톤)	7,347 (6.3)	3,651 (3.3)	3,790 (3.1)	7,441 (1.3)
	수출(천 톤)	2,964 (18.3)	1,668 (13.8)	1,695 (4.5)	3,443 (13.5)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2) 철강

동향
 내수는 호조, 수출은 부진
 ○ 내수는 호조세를 보인 반면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함

전망
 ○ 금년, 내수 증가 둔화와 수출 증가가 기대됨
 - 내수는 5.5%의 증가율에 그치고 수출은 내수 둔화, 수출 공급 여력의 확대로 3.6%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내수 둔화와 수출 증가세 지속
 ○ 내년, 내수 둔화와 수출 증가가 지속될 전망
 - 내년에는 국내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전망이기 때문에 철강 내수의 증가율이 금년보다 더욱 낮아져 3.0%에 그칠 전망이다
 - 수출은 수출 여건이 금년보다 상당히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전세계 철강 수요가 올해 1% 내외의 미미한 증가에서 내년에는 4% 증가로 회복될 전망이다
 · 국제 철강 수요 호조에 따라 수출량의 증가, 철강재 가격의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수출 채산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1995	1996		199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철강	내수(만 톤)	3,553 (16.5)	1,830 (10.6)	1,900 (0.0)	3,730 (5.0)	3,863 (3.0)
	수출(만 톤)	912 (△3.6)	450 (△3.6)	495 (11.2)	945 (3.6)	1,001 (6.0)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3) 반도체

동향

가격 폭락으로 수출 증가율 급락

- 96년 상반기中 반도체 가격의 폭락으로 수출증가율이 급락
 - D램 가격이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동안 1/4로 폭락
 - 이로 인해 4월 이후 작년 동월 대비 수출이 감소로 돌아섬

전망

97년 반도체 가격의 재하락으로 경기 부진 심화

- 가격은 96년 하반기에 안정화되었다가 97년에 재차 하락 전망
 - 반도체업체들간의 증산에 대한 자율 규제와 PC업체들의 반도체재고 소진의 완료로 공급과잉 상태의 해소가 예상됨
 - 그러나 97년에는 대만업체들이 본격 양산에 들어가 공급과잉이 심화될 전망이다
- 1~2년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
 - 96년에는 수출감소율이 -8.3%, 97년에는 -18.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번 하강국면을 거치면서 일본과 대만의 일부 경쟁업체들이 퇴출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업체들에게 유리함
 - 일본 노무라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 12~13% 우위에 있음

		1995	1996		199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반도체	내수(억 원)	89,691 (34.9)	43,358 (20.3)	59,876 (11.6)	103,234 (15.1)
	수출(억 달러)	221.1 (70.3)	104.5 (16.6)	98.1 (△25.4)	202.6 (△8.3)
					113,557 (10.0) 165.0 (△18.6)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4) 공작기계

동향

내수와 수출 모두 높은 신장세

○ 1/4분기 내수와 수출은 당초 예상과 달리 예년과 같이 높은 신장세를 보였음

전망

국내 경기 둔화로 내수 시장 침체

○ 1996년도 내수와 수출은 신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내수는 경기 둔화에 따라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작년 수준의 성장률에는 못미칠 것임
 - 수출은 올해에도 여전히 높은 신장세를 보이겠으나 엔저에 따라 일본 업체의 가격 인하 공세로 수출 시장의 잠식이 예상됨

○ 1997년도 내수 경기는 96년도와 유사할 것이지만 해외 시장은 예년보다 다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됨
 - 내수는 비록 정부의 자본재 육성 정책은 지속되겠지만 설비투자율이 1996년도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96년 수준과 유사할 것임
 - 수출은 일본 업체의 저가 공세가 지속될 것이고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출 증가율은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1995	1996		199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공작기계	내수(억 원)	17,293 (31.7)	8,335 (16.6)	10,787 (6.3)	19,122 (10.6)
	수출(억 달러)	3.6 (79.1)	2.3 (64.3)	3.2 (45.5)	5.5 (52.8)
					20,862 (23.6)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5) 자동차

내수는 회복세, 수출은 다소 둔화

동향

- 내수는 경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으며 수출은 다소 둔화되었음

전망

- 올해는 내수 회복과 수출 신장세 둔화가 전망됨
 - 내수는 경차 우대 정책에 따라 연간으로 4.1% 증가 전망됨
 - 수출은 동구권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출 확대로 21.5% 증가할 전망이다
 - 그러나 북미 지역에서는 일본 업체들의 공세적 판매(인센티브 인상)에 의해 일본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내수 신장세는 유지, 수출은 크게 하락

- 1997년도에 내수 신장세는 유지될 것이지만 수출은 크게 하락될 전망
 - 내수는 올해보다 5% 증가한 170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상용차(2.4%)보다 승용차(6%)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수출은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9.3%의 증가에 그칠 전망
 - 수출선 다변화가 한계에 이르면서 더 이상 수출 증가 요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1995		1996		199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자동차	내수(천 대)	1,556 (0.0)	786 (5.6)	834 (2.7)	1,620 (4.1)	1,701 (5.0)
	수출(천 대)	979 (32.5)	587 (11.8)	602 (32.6)	1,189 (21.5)	1,300 (9.3)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6) 조선

동향

수출은 증가세, 수주는 크게 하락

○ 수출은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주는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음

전망

- 올해 수주량은 작년 수준을 밑돌 것이나 수출은 작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 수주는 엔저에 따라 일본과의 수주 경쟁에서 고전이 예상됨
-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 우위가 현재 2% 정도인데 품질, 금융 등 비가격 경쟁력을 고려하면 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은 건조 능력 향상에 의해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밝지 않은 신조선 수주 전망

- 1997년도 신조선 수주 전망도 밝지 않으며 수출 신장세도 둔화
- OECD 다자간 조선 협정의 발효로 국내 업체들의 저가 수주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어 예전과 같은 700만 GT 이상의 수주는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러나 내년에는 세계 신조선 수주량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주량이 증가할 것임
- 선박의 건조 능력 증대가 마무리될 것이므로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1995	1996		199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조선	수주(천 GT)	7,760 (35.4)	1,899 (△40.8)	3,921 (△13.8)	5,820 (△25.0)	6,400 (10.0)
	수출(억 달러)	50.5 (13.1)	33.9 (77.5)	32.1 (2.2)	66.0 (30.7)	75.4 (14.2)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7) 건설

동향

96년 상반기 건설 수주는 급신장

○ 상반기 國內外 건설수주는 제조업 분야와 달리 급신장을 보였음

전망

○ 96년도 국내 수주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나 해외 수주는 대폭 증가가 전망됨
 - 96년 국내 건설은 13.7% 증가한 약 68조 원으로 예상됨
 - 96년 해외 수주는 83년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13년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더욱이 리비아 대수로 수주시 150억 달러에 이를 전망

국내 수주는 증가, 해외 수주는 대폭 감소 전망

○ 97년 국내 건설 수주는 증가할 것이나 해외 수주는 다소 감소 될 전망
 - 국내 수주는 올해보다 14% 증가할 전망
 · 민간 부문은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정부의 공공 부문 투자 확대와 해외 현금 차관 허용으로 SOC 민자 유치 활성화
 - 해외 건설 수주는 수주 증가율이 감소
 ·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나 대형 수주는 어려워 일시적인 감소

		1995	1996		199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	내수(조 원)	59.7 (17.3)	29.0 (19.7)	38.9 (9.1)	67.9 (13.7)
	수출(억 달러)	85.1 (14.4)	53.0 (77.9)	97 (74.7)	150 (76.2)
					125 (△16.7)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산업별 환율 변화의 수출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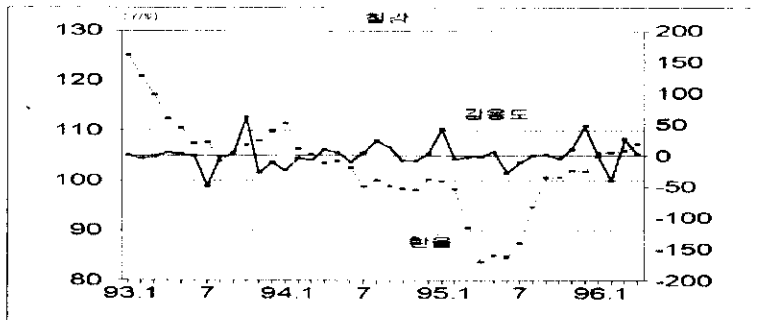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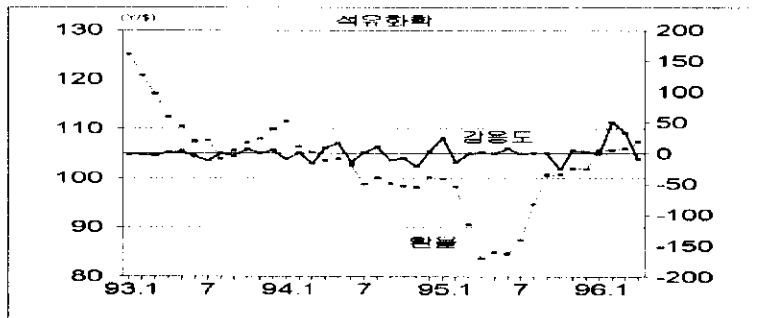
엔화 변동에 민감한
기계 산업 분야

○ 감응도 정의

- 前月 對比 수출 증감률 ÷ 前月 對比 엔/달러 환율 증감률
- 환율 변동에 따라 수출액이 어떻게 추세적으로 반응하는가를 나타냄(93년 1월부터 96년 4월까지)
- 그러나 환율에 의한 수출 반영 지체(time lag), 엔화 이외의 수출 영향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

- 기계 산업 분야(공작기계, 자동차, 조선)가 소재 산업 분야(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보다 엔화 변화에 더욱 민감함
- 석유화학, 반도체, 공작기계는 최근들어 엔화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임



96年 下半年 및 97年 國內外 經營 環境 展望

